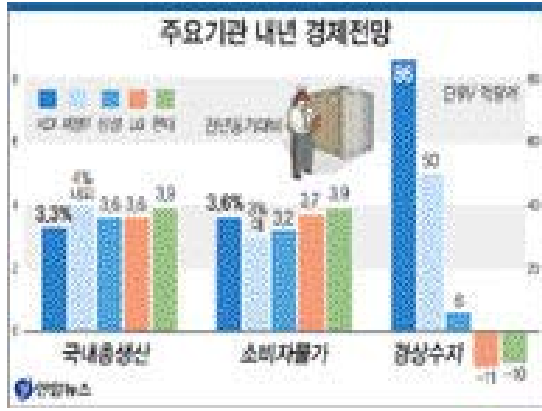


얼어붙은 실물 경제 ... '고용 한파' 오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우리 경제가 금융불안 여파로 상반기에도 추운 겨울이 이어지고 연간 성장률이 3.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민간소비와 투자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실업률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발 금융불안으로 세계 경제가 가라앉고 우리 수출액도 3%대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는 내년 상품수지의 흑자규모는 올해 전망치인 90억~100억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240억 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가운데 수출액(달러기준)은 실물경제 침체로 물량 증가가 둔화되고 원자재값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4천700억달러 안팎으로 3.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27~28%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수입액 역시 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급락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0.6% 감소한 뒤 하반기에 0.7% 늘면서 연간 0.1% 증가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유가와 원자재값 하락은 불행 중 다행이다. 실제 내년 유가가 올해보다 30% 낮은 70달러에서 안정된다면 이에 따른 구매력 회복이 GDP의 1.5%에 해당하는 연간 150억 달러에 달하고 이중 110억 달러는 경상수지 개선요인으로, 40억 달러는 내수급락 완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서비스·소득·경상수지 전 수지는 18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는 올해보다 적자폭이 줄어든 155억 달러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물가 상승률은 유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국내 경기하강에 따른 수요압력도 둔화되면서 상반기에는 4.4%로 여전히 높지만 하반기에 2.8%로 떨어지면서 연간 3.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시장에는 한파가 이어지면서 이번 4분기에 3.3%로 예상되는 실업률은 내년 상반기 3.7%, 하반기 3.5% 등 연간 3.6%까지 상승하고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상승 압박·고용여건 악화

민간 소비·투자 '제자리 걸음'

수출액도 3%대 증가에 그칠 듯

9%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토목분야에서 증가가 예상되지만 경기하강으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설은 부진의 늪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액 증가율 3.2% ... 상반기 실업률 3.7% = KDI

◇성장률 3.3% ... 상반기엔 2.1%까지 추락 =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올해 3분기 3.9%에 이어 4분기에 2.7%까지 떨어지면서 연간 4.2%에 머무는데 이어 내년에는 상반기 2.1%, 하반기 4.4% 등 연간 3.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경색이 하반기나 돼야 점차 풀릴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정부 전망치인 4%를 밑도는 것이며 삼성경제연구소(3.6%)와 LG경제연구원(3.6%), 한국경제연구원(3.8%), 현대경제연구원(3.9%), 금융연구원(3.4%) 등 다른 연구소의 예상치보다도 낮다.

KDI는 민간소비 역시 올해 4분기에 0.2%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0.4%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하반기에 3.9%로 회복되면서 내년에 2.2% 증가할 것으로 봤다. 물가상승 압박, 자산가치 하락, 고용여건 악화 등을 소비둔화 요인으로 꼽았다.

실비투자 증가율의 경우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번 4분기에 1.8%에 이어 내년 상반기 1.5%로 떨어지지만 하반기에 내수의 점진적 회복과 자본재 수입 비용 하락에 힘입어 2.2%로 소폭 회복하면서 연간 1.9%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4개월 연속 내렸다.

12일 한국수입업협회(KOIMA)에 따르면 주요 수입원자재 가격을 종합해 산정하는 '코어마지수'가 10월에 285.77포인트로 9월보다 73.45포인트나 급락했다.

유화원료(-25.96%)를 비롯한 비철금속(-23.78%), 철강재(-23.22%), 농산물(-22.27%), 광산물(-19.55%) 등 전 품목에서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수요가 급감한 빌릿(-44.12%)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유가하락 영향을 받은 나프타(-37.08%)와 수유가 크게 감소한 니켈(-31.08%)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 원자재가 4개월째 하락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4개월 연속 내렸다.

12일 한국수입업협회(KOIMA)에 따르면 주요 수입원자재 가격을 종합해 산정하는 '코어마지수'가 10월에 285.77포인트로 9월보다 73.45포인트나 급락했다.

유화원료(-25.96%)를 비롯한 비철금속(-23.78%), 철강재(-23.22%), 농산물(-22.27%), 광산물(-19.55%) 등 전 품목에서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수요가 급감한 빌릿(-44.12%)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유가하락 영향을 받은 나프타(-37.08%)와 수유가 크게 감소한 니켈(-31.08%) 등이 뒤를 이었다.



꼼꼼한 토마토 선별 작업

12일 화순군 도곡면 도곡농협 토마토 건조장에서 부녀자들이 토마토를 선별하고 있다. 이 토마토는 10kg 한 상자당 1만8천원에 광주 각화동 농수산물시장 등에 출하된다.

전광우 금융위장 "펀드 수수료 낮춰라"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위원장은 12일 은행회관에서 증권·자산운용사 사장들을 만나 펀드 수수료의 인하를 주문했다.

전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펀드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각종 금융대책을 내놓는 만큼 증권·자산운용사도 시장안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주가급락으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 펀드 판매자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챙

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펀드 수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5%로 규정된 펀드 수수료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증권·자산운용사가 최근 민원이 급증하는 펀드의 불안 전 판매를 방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증시 안정을 위해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안한 판매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차관 "공기업 정원·임금 동결하라"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20여개 공공기관장들에게 공개석상에서 정원·임금 동결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배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한전 KDN 양지홀에서 열린 '경제난국 극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자세로 공무원들이 임금과 정원을 동결하라"며 "공공기관도 내년도 임금과 정원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난 추가 수정예산을 제출하고 경기 부양 노력에 나섰 듯이 주택공사·토지공사·한전 등 투자 여력이 있는 공기업도 투자를 늘려달라"며 "공기업 투자 1조원 추가 확대" 목표를 다시 강조했다. 공공부문 효율성 10%이상 향상, 민영화·통폐합 등 공공기관 선진화 등에 대한 적극적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10조원 가량 늘어

건설부문 등 5조 투입 일자리 8만개 창출

국토부 내년까지 ... 산업·물류단지 추가 지정

정부는 내년에 건설, 보건복지, 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모두 7만9천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의 건설투자를 5조원 늘려 신규 일자리를 5만개 이상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분야별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건설투자 확대 등 즉시성이 높은 과제들과 기업투자유인 조성 등 과급효과가 큰 과제 발굴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주요 공

공기관의 건설 투자를 내년말까지 3조8천억원 확대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민간 선투자도 1조2천억원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건설투자 확대조치가 계획대로 되면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 SOC예산을 확대하는 것과는 별개다.

국토부는 내년에 국토해양 전문인력도 올해보다 2배이상 많은 2천7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을 위해 물류회계 등 고급전문 과정을 개설하고, 물류 전문대학원 인턴과정도 확대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기반시설 확대 공급,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토해양 관련 산업 육성과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의 투자유인 조성에도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우선 단축된 개발 절차 등에 따라 내년에 산업단지 11개 지구(1천200만㎡), 물류단지 12개 지구(518만㎡) 등을 추가로 지정해 나가고 항공운송업 면허제 개편 등을 통한 항공산업 육성을 지원하며 물류건설링 지원 및 물류항업센터 설립 등을 통해 물류전문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케어서치	금호타이어광주공장 사무보조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13	062-515-0026
영풍문고	영풍문고 매장 및 사적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15	062-364-0210
명인건설	경리 및 일반사무업무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17	062-382-0064
☎그린텔	KTF 서광주플라자 정규직 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7	042-223-4900
인포드림넷	[광주]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1/17	062-236-0217
☎동경인스넷	사무관리 총무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1/17	062-233-100
캘빈클라인인	캘빈클라인인 매장관리, 판매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8	062-236-2996
☎도원	피리비게드 교육담당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1/18	062-381-8201
신성자동차	[벤츠 코리아]영업사원 경력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9	062-376-2556
☎하나에드림	광고 디자이너 신입/경력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9	062-974-0041
서울검사	정규직 비파괴검사직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1/21	062-369-0790
레몬테이블	조리경력직 및 주방보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1	062-223-8778
중앙종합기획	맥 편집 디자이너 직원 (신입/경력 무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2	062-222-5349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자금난 건설사 줄도산 공포 확산

'신성'은 시작일 뿐... 다음은...

100위권 20개사 유동성 위기설

중견건설업체 신성건설이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건설업체에 잠재된 줄도산 공포가 표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 끝내 '두 손' 든 신성건설 = 미분양 적체 등 주택경기 침체와 맞물려 신성건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려졌다. 지난해 말에는 1차부도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다.

당시 채권은행들이 마감을 4번이나 연장한 끝에 부도는 면했지만 금융권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1차부도 모면은 잠깐 한숨들릴 수 있는 시간을 번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신성건설은 1차부도를 모면한 이후 E그룹 등과 매각협상을 계속 진행했으나 주택경기의 침체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지금의 상황에서 인수에 적극적인 기업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후 자금난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신성건설은 금융감독당국, 채권은행 등과 협의를 거쳐 법정관리의 수순을 밟기로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이제 시작일 뿐이다" - 공포 확산 = 올해 들어 건설업체의 부도는 하루 1개꼴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돈을 빌려 시작한 주택사업이 속속 미분양되면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들에는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잇따라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건설업계의 자금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각종 개발사업들에 투입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문제로 신성건설 회생절차 신청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터져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대우자동차판매가 시행사의 PF를 대신 떠안은 바람에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등 이미 부동산 PF는 '태풍의 눈'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 안팎의 평가다.

정부는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내 업체중 20여개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이 이들 업체들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할지 여부를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건설을 계기로 금융권에서 자금 지원에 더 인색해질 수가 있으며 이는 가뜰이나 힘든 건설업체를 더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불안

美 서킷시티 파산 ... 코스피 4.87P 하락

미국발 악재로 코스피지수가 장중 1,100선이 무너지고 원·달러 환율은 1,350원을 넘어서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동반 악세를 보였다.

12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87포인트(0.43%) 떨어진 1,123.86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급락세로 출발한 뒤 장중 1,100선이 붕괴됐으나 기관의 매수로 낙폭을 줄였다. 코스닥지수도 미국발 악재 등의 여파로 6.06포인트(1.86%) 하락한 319.68로 마감됐다.

외국인들은 미국 가전유통업체인 서킷시티의 파산에 이어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 소식에 '팔자' 행진을 벌였다. 신성건설의 회생절차 신청 소식도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

외환시장은 이틀째 악세를 이어갔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29.66 상승한 1,359.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주가 약세의 영향으로 30.1원 급등한 1,36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수출업체의 달러매물이 나오며 매매공방을 벌였다.

채권시장에서는 지표물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단기급등에 따른 반발 심리로 0.10%포인트 떨어진 연 5.14%로 마감됐다.

국제유가 급락

두바이유 등 3대 원유 50달러 밑으로

국제유가의 지표물인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의 선물가격도 60달러선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를 포함해 세계 3대 유종의 가격이 모두 50달러대로 주저앉았다.

1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1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3.00달러 떨어진 52.78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1월30일 50.81달러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 선물도 배럴당 3.08달러 내린 59.33달러로 마감하며 60달러선이 붕괴됐다. 런던 석유거래소(ICE)의 브렌트유 선물 가격 역시 배럴당 3.37달러 하락한 55.71달러로 장을 마쳤다.

WTI선물이 50달러대에 거래된 것은 지난해 3월21일 59.61달러 이후 처음이다. 또 두바이유 현물과 WTI 및 브렌트유 선물 등 3대 유종 가격이 나란히 50달러대에 머문 것은 작년 3월 20일 이후 처음이라고 석유공사는 설명했다. 이같은 급락은 세계 경기침체로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같은학교, 학생끼리
통화료 50%할인
학교끼리 T타임 할인제도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